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頁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植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日英間密約說 全然事實無根

米國에流布되는온갓『데마』에 맥首相聲明書發表

맥도날드首相

【倫敦十二日發聯合】 맥도날드首相이 日本의 軍備均等要求를 原則으로 承認하는 妥協試案을 提出한데 對하야 그러지 안하여도 英米兩國의 合作에 苦心中인 米代表部及米本國에 多大한 不安을 주어 海軍豫備會談과 併行的으로 日英兩國政府間에 極秘裡에 政治經濟關係等의 提携運動이 繼續되야 日滿兩國의 石油問題에 關聯하야 日本政府에 妥協案을 提示하엿다는等 日英綿業會商復活이 考慮되고 잇다는等의 風說이 米本國에 盛行함으로 이가튼 實情에 鑑하야 맥도날드首相은 十二日夜特히 聲明書를 發하야 種種의 風說을 一切否定하엿다 右聲明要旨는 다음과 갓다

海軍豫備會에 關하야 日英代表間의 交涉經過는 一一히 米代表部에 報告하는 同時에 英米兩國代表間의 交涉經過도 日本代表部에 通告하고 잇다 日英兩國政府間에 極秘裡에 經濟的政治的活動이 繼續되고 잇다는 風說은 全然事實無根이다 日英兩國의 石油問題에 關하야 英代表部는 아직 日本代表部로부터 秘密裡로나 公明하게나 妥協의 考慮를 要求바든일이 업다 日英에 關한限 日英綿業會商은 數個月間停頓된 狀態대로 잇다

豫備會談圍繞코 日英提携說流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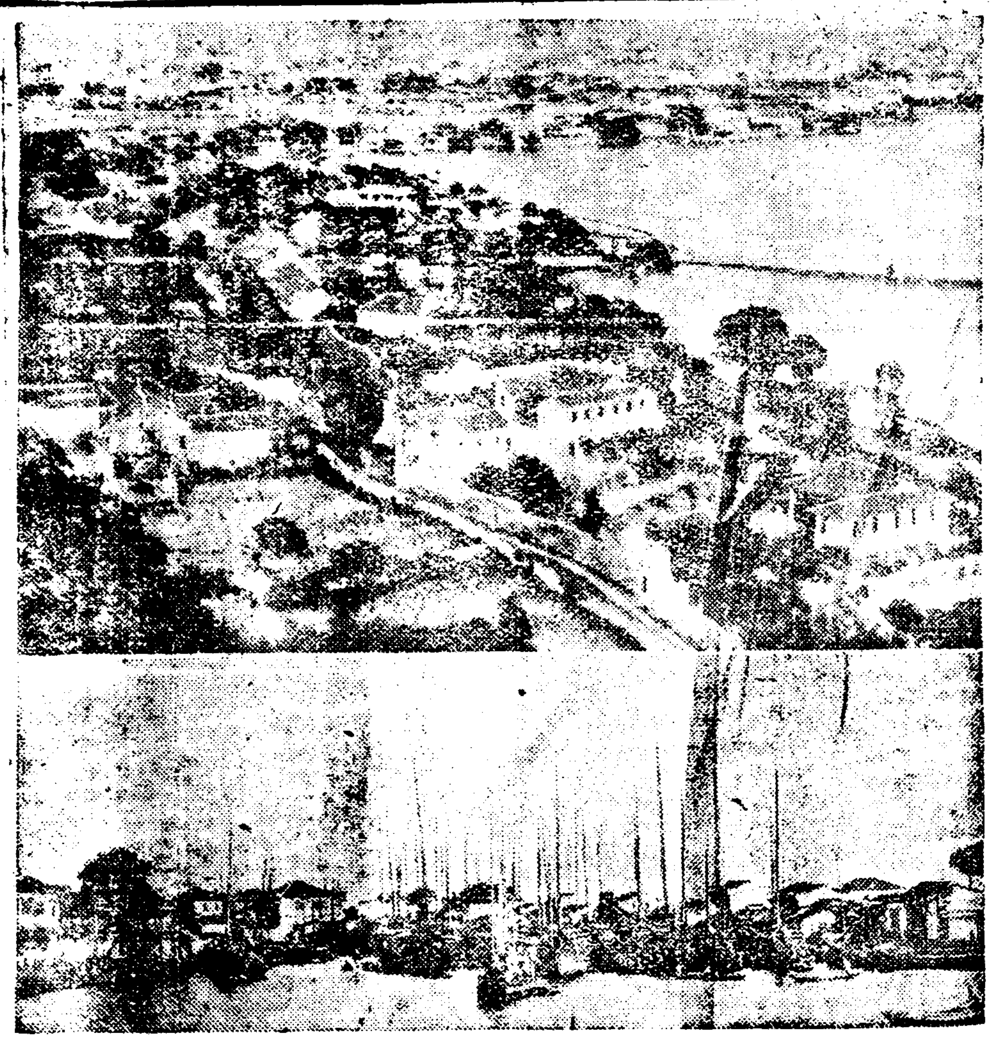
米國官邊서事態重視

【華盛頓十二日發】 今日런던·타임스紙는 華盛頓特電이라하야 海軍軍縮豫備交涉을 圍繞하고 日英提携說이 流布되고 잇슴에 對하야 華盛頓白堊館側에서는 자못 注意를 하고 잇다는 旨를 報하야 現在의 海軍軍縮豫備會談空氣中에는 英米友好關係의 危險이 伏在하여잇다고 注意를 喚起자엿는데 右報道에는 海軍軍縮豫備會談에 잇서 日英을 牽制하려는 白堊館側宣傳이 包含되여잇다고 觀測되는데 米大統領及側近의 顧問들은 萬若軍縮豫備會談이 失敗되면 英米의 協調維持는 困難할지도 알수업다고 非常히 不安을 感하고 잇다 그리고 大統領은 萬若英國에 日本을 操從하야 米國을 除外하려는 行動을 한다는 印象이 確認되는 境遇에는 英米友好關係에 不幸한 影響을 及할지도 알수업다는 旨를 데비스代表에 對하여도 强調하야 그善處를 希望하고잇다고 보인다

UP報道는 徹頭徹尾虛報

英外務省發表

【倫敦十二日發聯合】 倫敦豫備會談에서 日本代表가 英國에 對하야 滿洲國의 商業上特權을 줄것을 條件으로 海軍問題에서 讓步하기를 提議하엿다는 報道가 米國유나잇데드프레스通信에 依하야 傳播되엿는데 이에 對하야 英外務省은 十二日이가 [illegible]하여 [illegible]라고 [illegible]



漢口、九江兩租界 英、正式返還決定

카드간駐中公使南京政府와密議 列强의對中的好意

【上海發】 英國駐中公使카드간氏는 南遊途中 南京에 들녀 國民政府와 무엇을 折衝하고 잇던바 이것은 民國十六年(一九二七年)三月 實力으로 回收한 漢口、九江의 兩租界를 正式으로 返還하려는것으로 判明되야 各方面의 注目을 끌고 잇다 카드간公使는 去十月二十七日 右租界返還에 關한 正式手續에 對하야 國民政府와의 사이에 最後的 覺書를 交換하고 此에 關한 條約暨協定에 調印하려는것으로 兩國政府는 近近 一八六一年三月及一八九九年八月 英中條約廢棄를 聲明하기로 決定한듯하다 伊太利와 駐中公使館昇格各國이 中國에 好意를 表하는 此際에 英國의 對中態度는 그影響이 多大할것으로 頗히 注目된다

正式返還을 傳하고잇는 漢口、九江兩港

世界無敵의 空軍大擴張案 航空委員會에 提出

五年內海軍機二千臺建造等 뷘슨海軍委員長提案

【華盛頓十二日發聯合】 民主黨中의 海軍論者下院海軍委員長뷘슨氏는 十二日全國航空委員會에 臨하야 空軍의 一大擴張案을 提出하엿다 同案은 巨人航空船의 代艦建造를 爲始하야 世界에 二나라 海軍에도 類例를 볼수업는 新艦種巡洋航空母艦의 建造로서「無敵海軍」의 立體的擴充을 圖한것으로 그要旨는 如左하다

一、아크론號及 로스안젤스號에 代할 巨人航空船의 建造
二、란그네號에 代할 一萬五千噸級新航空母艦建造
三、軍用機의 發着甲板을 裝備한 巡洋艦의 建造、右建艦에 依하야 作戰上의 各種艦種의 價値를 確定함
四、沿岸海軍根據地를 擴張코저 海軍機를 增加함
五、五個年乃至七個年計畫에 依하야 海軍機二千臺建造計畫繼續
六、現在沿岸의 防空防備는 陸海兩軍의 分擔이 되여잇는데 이制度를 變更하야 沿岸의 防空防備全部를 海軍에 委託함
七、프로리다州펜사코라海軍航空訓練所를 擴張하야 近代化함
八、布哇眞珠灣及산챠코의 空軍根據地는 陸海兩軍에 使用함을 中止하고 專혀 海軍의 空軍根據地로 改編함

右提案에 際하야 뷘슨氏는 미리 海軍當局의 同意를 어덧다고 解釋되며 或은 루즈벨트大統領의 承認도 어덧다고 解釋되는 委員會召集과 함께 이 空軍擴張案이 議會에 提出될것은 大概確實하다고 보인다

豫備會談決裂豫想코 米建艦計畫着手

會商에對한一種示威?

【電通華盛頓十二日發】 米海軍當局에서는 海軍會議決裂의 境遇를 豫想하고 벌서 建艦計畫의 의푸로그람 決定에 着手하엿다 右는 建艦競爭이라는 名稱을 附치안코 單히 現行比率計畫이라고 부르나 實際는 建艦競爭과 가튼것으로 倫敦會商에 對한 一種의 示威로 觀測된다

米、依然日英接近指摘

【電通華盛頓十二日發】 華盛頓官邊에서는 日英比率握手運動說에 關하야 맥도날드英首相의 否定聲明이 發表되엿슴에 不拘코 依然日英接近의 可能性을 指摘하야 南中의 錯綜한 日英의 權益이 日米建艦競爭이 勃起될 境遇 英國이 陷入할 困難한 立場等을 列擧하야 特히 萬若 日本이 英國의 妥協案에 對하야 가장 强硬한 態度로써 拒絶할 意向을 表示하여올 境遇에 英國은 後日會商再開의 伏線을 必要로 하는 關係上 日本의 主張을 가장 巧妙히 回避할

白國內閣總辭職

閣僚間軋轢으로

【電通부랏셀十二日發】 白耳義現內閣은 十三日下院에서 總辭職할 旨를 發表하엿는데 이는 外務大臣 바야스라─氏와 豫算大臣間의 個人的軋轢에 依한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後繼內閣組織은 비야스라氏에게 降下할것으로 보인다

日本보다米國 斷然優勢海軍必要

東三省問題는米國의不關事 뉴욕타임스紙所報

【紐育十二日發聯合】 뉴욕·데일리뉴스紙는 十二日紙上에서 「滿洲國政府承認」의 必要를 力說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日本政府의 南洋委任統治諸島의 防備에 關하야 現在新聞紙上에서 떠들고 잇스나 結局 爭 내지 안는 물둑에 煙氣는 나오지 안할 터이다 最近日本政府가 取하고 잇는 諸政策과 함께 이 事實은 米國이 軍備를 充實히 하지 안하면 안될것을 警告하는것이다 이 지음 米國으로서는 滿洲國을 承認하야 不安의 씨를 除할것이다 日本軍이 中國의 東三省을 占據하야 新國家를 建設한것은 旣定의 事實로 四億의 中國人이 六千五百萬의 日本人을 防禦할 수업나 고하면 엇지 할 수 업나 米國으로서도 興味 바이 아니다 同時에 米國으로서는 日本海軍에 對하야 斷然優勢한 海軍力을 保持하야 日本政府가 軍艦一隻을 建造하면 米國은 二隻을 建造할것이다 海軍問題에 關하야 英國과 提携할일 比律賓에 速히 獨立을 許與할일 布哇、아류샨群島의 防備를 完備할이 必要하다

獨逸特使新提案

【電通倫敦十二日發】 獨逸側情報에 依하면 히틀러總統의 特使로서 渡英中의 리벤트롭프氏는 英國兩當局者 이든氏에 對하야 獨逸의 軍備를 合理化할 新方法을 提示하엿다고 한다 右新提案이 實現되는 時에는 獨逸一般軍縮會議에 復歸하게 될터인데 昨年十月十四日脫退以來 第一年餘에 軍縮會議에 復歸하게 되는것이다

獨逸海軍의자랑 少戰艦엠號 艦籍에編入되여

【電通킬헤룸스하벤十二日發】 獨逸海軍에서 자랑하는 第二小戰艦「엠덴」(一萬噸)는 十二日正式으로 艦籍에 編入되야 演習을 行하기로 되엿다

南洋飛行場問題 聯盟理事會에報告

【電通쥬네브十二日發】 國際聯盟委任統治委員會는 日本의 南洋委任統治地의 飛行場設置에 關하야 如左한 報告書를 理事會에 提出할 件을 可決하엿다 委任統治委員會는 日本政府에 對하야 南洋委任統治地의 港灣修築及飛行場設置에 關하야 說明을 要求하엿다 그리고 右報告書는 來年一月理事會에서 審議될 터이다

資本輸出制限令 米國財務省撤廢

【電通華盛頓十二日發】 米國財務省은 過去一個年半通貨政策遂行上 資本輸出制限令을 實施하야 資本輸出에는 嚴重한 規定下에 政府의 特許를 要하게 되여잇섯는데 十二日右制限令을 撤廢하고 政府의 特許없이 一般的白紙許可證으로서 通貨及資本輸出을 許하기로 되엿다

北鐵交涉問題 完全解決在邇?

十三日午後유大使招致코 日本側은最後案提出할터

【東京電話聯合】 北鐵交涉은 重視된다 廣田、유레니에프 兩氏會見에 依하야 漸次끝에 接近되고 잇는데 廣田外相은 兩三日中에 유레니에프大使를 招致하고 細目條件에 關하야 協議키로 되엿다 滿洲國側으로서는 蘇聯邦의 提示한 支拂商品品目에 關하여는 何等異論이 업시 滿足을 表하고 잇슴으로 殘餘問題는 哈爾賓의 北鐵貸借照表作製와 支拂保障及商品價格決定의 三點인데 第一案은 現地交涉에 맥기더라도 他二點에 關하야 折衝을 行할것으로 보이며 同日會議結果는 頗히

【電通東京電話】 北鐵讓渡交涉은 去六日廣田外相、유레니에프大使會見結果 日蘇雙方에서 各其讓渡條件에 關하야 相對側의 提案을 再檢討하는 同時에 現地에서 滿蘇兩國으로부터 專門委員을 내여 現地調査를 行하기로 되엿는데 廣田外相은 蘇聯側主張을 詳細히 檢討한 結果 一、二의 疑問點을 除하고는 大體로 이에 對한 日本側의 最後的態度를 決定하엿슴으로 十三日午後外務省에 유레니에프 大使의 來訪을 求하고 이를 提示協議키로 되엿다

無敵空軍建設 現下의最大急務 스완손長官談

【華盛頓十四日發聯合】 下院海軍委員長뷘슨氏가 十二日全國航空委員會에 臨하야 「無敵空軍建設」의 急務를 力說하야 一大空軍擴張案을 提出한데 對하야 海軍長官스완손氏는 海軍當局의 立場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海軍省當局의 戰略的條件上航空隊及母艦을 沿岸에 增設함이 刻下의 急務이다 如何한 海軍補充計畫의 急速한 實現만이 米本國及海外屬領의 防備를 가장 確實히 하는것이다

增稅豫算問題로 藏相、首相과重大協議

許多한困難豫想

【電通東京電話】 後藤內相은 十二日午後五時 岡田首相을 官邸로 訪問하고 去十日午前藤井藏相과 會見顚末을 述하야 明年度豫算各省復活要求에 對한 藤井藏相의 決意는 자못 鞏固하야 軍部豫算及災害復舊豫算의 折衝은 자못 困難視되다

一、一方明年度의 三千萬圓臨時增稅案에 關하여도 藏相은 負擔의 均衡을 圖하는 見解下에 非常히 牢固한 決意를 가지고 잇다

고 述하엿다 그리고 藏相의 言明에 依하면 各省復活要求는 아직 事務的折衝中이라는 旨를 報告하고 會見四十分만에 同五時四十分에 辭去하엿다 이 結果 明年度豫算編成은 今後도 許多한 波瀾이 豫想되는데 岡田首相으로서는 從來의 例로 보아 萬若第三者가 仲介的政治折衝에 설 境遇는 事態를 도리혀 紛糾식힐 念慮가 잇다고 하야 될수잇는限 閣僚間의 折衝에 맥길 方針을 取하야 適當時에서 軍部大臣과 會見하는것은 힘써 回避할 模樣으로 豫算編成에 關하야 本格的折衝에 들기까지는 來十八日閣僚歸京後가 될 模樣이다

그리고 臨時議會에 提出할 今年度追加豫算案은 來二十三日까지에 決定키로 되엿슴으로 明年度豫算決定이 果然그때까지 成立될지는 疑問이나 一方政府首腦部로서도 各省復活要求에 關하야는 될수잇는 圓滿解決을 希望하야 多少遲延은 不得已하다고 하고 잇슴으로 明年度一般豫算案은 일너도 十一月二十七日臨時議會直前까지 그 最後的決定을 끌고갈 情勢이다

陸軍復活豫算 遂政治的折衝에

【電通東京電話】 橋本陸軍次官은 十二日午後六時 直時林陸相을 訪問하고 來年度陸軍省豫算復活要求에 關하야 藤井藏相

蔣介石氏 九江으로向發

【漢口十二日發聯合】 蔣介石氏는 十一日午後三時半 太原으로부터 飛行機로 漢口에 來着同夜午後十時軍艦永綏로 九江에 向하엿다 그리고 太原잇는 孔祥熙氏와 蔣介石氏夫人은 同地로부터 再次北平에 飛行機로 歸還하엿다

及大藏事務當局과 復活要求折衝을 한 經過及結果를 報告하엿다 이에 依하면 藤井藏相의 態度는 자못 强硬하야 到底히 事務的折衝만으로는 解決不可能한 것이 明白히 되엿슴으로 林陸相은 十三日中에 岡田首相과 會見하야 政治的解決을 講究키로 되엿다 陸軍으로서는 千萬圓程度의 復活要求는 어데까지 固執할 方針으로 이를 爲하여는 如何한 犧牲도 辭讓치안는다는 强硬態度를 가지고 잇다

國庫再保證 大藏省서承認

【電通東京電話】 商工省에서는 일직부터 窮乏地方에 對한 中小商工業者救濟資金으로서 府縣保證에 對한 國庫의 再保證을 行하고저 그 資金融通을 大藏省에 要求中이든바 今回大藏省에서는 右商工省의 申請을 承認하기로 決定되엿다 그리고 그 金額及利子에 關하여는 目下大藏商工兩當局間에서 折衝中인데 具體案決定後에 預金部運用委員會에 附議하야 承認을 求할 터이다

人事·集會

▲鄭宗彦氏(中央高普敎員)十一日午後十一時霽目洞八七自宅에서 喪配

八面鋒

◇ 『라듸오』를 通하야 米洲에서 歐洲에서 亞細亞에서 『世界同胞主義』를 放送.

◇ 放送뿐이야 못할것잇스랴만은, 同胞보다 더한 兄弟끼리도 싸우는 것을 엇지하랴.

◇ 合同通信이 日英提携說을 傳하자, 英首相이 발연하기에 奔走한 모양.

◇ 提携만도 이러케 어렵고 말성스럽거든, 平和를 바람은 그야 말로 餠畵가 아닐가.

◇ 日本米第二回豫想은 三千十四萬石, 來의 凶作으로 僅僅五千〇七十四萬石.

◇ 그래도 朝鮮米와 臺灣米가 잇는 以上 굼주릴理는 萬無, 오즉 農事짓고 배골을 사람이 걱정.

胃는 飮食을 消化하는 곳임으로 胃가 튼튼하면 따러서 몸이 튼튼해지는 同時에 活潑하게 活動을 할수 잇습니다. 이와 反對로 胃에 故障이 생기면 몸이 衰弱하야 지고 元氣조차 업서지게 됩니다. 胃의 故障이 即胃病입니다.

弊房에서 製劑한 太田胃散은 先祖로부터 代代로 傳하야 내려오는 秘方의 胃病靈藥인대 進步된 醫學上으로 볼지라도 이 以上더 効力잇는 靈藥이 업슬뿐아니라 藥이 먹기 쉬우며 또 藥價가 極히 低廉합니다.

以上과 가티 太田胃散은 엇더한 胃病에나 다 큰 効力을 가지고 잇스나 체증(溜飮), 위통(胃痛), 배살이 꼿꼿한데(胃痙攣), 가슴아리(胸痞), 과식(飽食), 관격(食傷), 주체(宿醉), 배멀미(船暈), 차멀미(車暈), 머리 압흔데(惡心), 토하는데(嘔吐), 식욕업는데(食慾減退), 헛배부른데(風氣痞滯), 소화 아니되는데(飮食不消化)等모든 病勢에 特效가 잇습니다. 그 効力은 果然 놀낼만하야 마치 神의 造化 갓습니다. 사람의 保健上 업지 못할 良藥입니다.

胃가 튼튼해지면 自然히 腸도 튼튼해지는 同時에 消化作用이 잘됨으로 營養分의 吸收가 完全히 되야 春夏秋冬 四時를 通하야 늘 健康하게 지낼수 잇습니다.

貴家庭의 幸福을 爲하야 常備藥으로 꼭 一個의 太田胃散을 豫備하시기를 懇切히 勸告하나이다

藥價	
四十日分	金壹圓
十七日分	金五拾錢
十日分	金參拾錢
六日分	金貳拾錢
二日分	金拾錢

本舖 東京 太田信義藥房

國內各地의 藥店에서 發賣합니다

家庭 가정의 ...

어저며새사할까

問 금년이십팔세녀자이온대 생산치못하야 남편은일년만려기를려보고 그래도낫지못하면 자근마누라를엇겟다고 합니다 주야로수심으로만지내고잇습니다 아해가들때가잇다니엇던때이든니까 월경후에칠후가적당합니까 그런대남자는병원에가서수차진찰하야도 아무병도업다고함니다(平壤一讀者)

答 부인과진찰을한번바뎌보시요 아해가들기쉬운때는 다음월경전 제십이일로부터 제십구일까자의 팔일간입니다 그러나 자궁이나나팔관에병이잇는사람은 그병을곳치지아니하면 안됩니다

(大學病院產婦人科金錫煥)

수양하려다 신경쇠약되여

問 당년십구세남자인데 집에잇슬때부터 수양을하겟다고 엇더케만흔공상을하얏는지 지금은폭신경질이된것갓습니다 현기가나고 때때정신이업고 잘보지못하며 공상이늘됩니다 이런증세가 이삼년전부터잇스나 잠은잘옵니다 엇더케하여야치료될까요(間島C生)

答 병의증세가잇다고 자기자신이신경쇠약이라고 판단하고치료하겟다생각함은 오해입니다자기몸이귀중한것인줄알게되면의사의게문의하여치료할것입니다당신증세로생각하면수양한다는방법이글너서그런것이오 이수양하겟다는생각을업시하고 조석으로 운동을하야 보십시요실내운동보다 실외운동이적당하겟습니다 운동을장려하며가며 한편으로귀속적생활을하면당신이신경쇠약이라생각하게된증세도매전장군이될것입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醫朴秉來)

十一月十三日(火曜)

◇午後六時 奇話 報恩 金泰人

◇同六時二五分 滿洲語講演(十五) 張志暎

◇同七時三〇分 精神作興記念講演(終) 報恩感謝 李康灝

◇同八時 絃樂四重奏 一、가울의仙女…꾸리作曲 二、天使의夜曲…브라ー가作曲 三、메누엣…뽀하作曲 四、餉牙利舞曲…브라ー므스作曲 五、꼿노래…랑게作曲 ◎延專四重奏團◎ 第一빠이올린文學準 第二빠이올린金生麗 비오라李仁範 쳴로李有聖

◇同八時 歌詞 一、處士歌 二、竹枝詞 金東壽 金東鉉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그女子의地獄 全一景 李石薰作 放送劇協會 (配役) 金英純……車紅女 李弼洙……李翼 記者A……洪英徹 同B……朴政遠 李弼洙의木妻 李英惠 百貨店 外交員……林泉 給仕……金河影

十一月十四日(水曜)

◇午前九時二五分(前) 陸軍特別大演習觀兵式御模樣

◇午後〇時五分 아리랑 一、景福宮아리랑 二、江原道아리랑 三、密陽아리랑 四、江原道아리랑 五、全羅道아리랑 六、江原道메나리아리랑

李鼎善 短篇朗讀成

◇同二時 家庭講座 家庭의向上(一) 李智光

◇同六時 獨唱과合唱 一、合唱선녀들…끌류作曲 二、백국새…이부리넬로듸 三、백티와빌리…왜걸던作曲 四、二部合唱 반향…스펜서作曲 五、봄이왓네…메이스더作曲 六、獨唱 마즈막님…도니쩻티作曲 七、合唱잘자라…니글레이作曲 八、同기도…모차르트作曲 九、同종출때…피니쉬넬로듸 十、獨唱그별은곱게빗나네…하이렌드멜로듸 十一、合唱뚱뚱보마나님 레지날드作曲 阿峴女普校四年 東大門女普校五六年 阿峴女普校四年 同六年 同五年 崔吾吉 同六年 東大門女普校四年 同五年 同六年中眞珠 同六年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成績에對하야(一) 尹䄵鍾

◇同七時三〇分 講演 一、國力의充實과職業指導(文部大臣 松田源治) 二、職業紹介事業의使命과그機能(內務省社會局長官 赤木朝治) 譯講 西村眞太郎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天皇帝皇 二、唱劇調 春香歌 李東伯 鼓手池龍九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 어머니의손 朴應冕 音樂伴奏

◇同九時 西道歌謠 一、關山戎馬 二、愁心歌와역금 三、孔明歌 四、關東八景 五、난봉가 崔錦紅

十一月十五日(木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明姬의罰酒 趙東秀

◇同二時 家庭講座 家庭의向上(二) 李智光

◇同六時 童話獨唱 一、자장가 二、옴바생각 三、어렷슬때 四、순이무덤 五、너왜갓느냐 六、달잡이 七、고요한강까 李永淑 作奏 柳基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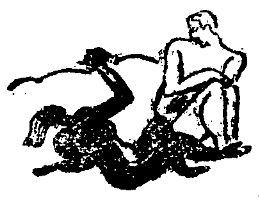
◇同六時二五分 滿洲語講座(十六) 張志暎

◇同七時三〇分 講演 儀禮準則發布에對하야 總督府社會課長 嚴昌燮

◇同八時 (東) 첼로와管絃樂 — 新交響樂團練習所로부터中繼 — 첼로獨奏 에마누엘·포이야만 日本放送交響樂團指揮

◇同八時四〇分 京城歌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勸杖歌 三、달거리 四、풋고초 金泰運 崔運香

◇同九時 伽倻琴倂唱 一、短歌 어화靑春 二、唱劇調水宮歌 吳太石 鼓手 丁元燮



連載短篇小說

新婚旅行 【8】

朴花城 作 夕影 畫

목포(木浦)

C려관에서 저녁밥을먹고 준호는 목포시가를 구경식여준

다하야 복주를 다리고 나서다。

「아까보니깐 유달산에 움막집부흔게 우서뵈드니만 지금보니깐 불이 반짝반짝한게 퍽곱게뵈요」

하고 복주가 유달산을 바라보며 하늘을처다보앗다。 금음밤이라 하늘에는 수효대로의 별이 다나와서 반짝엿다。그별들은하늘놉히서 교만한웃음을 흘니고잇고 유달산 중턱에서 깜박어리는 불들은 산들바람에 나마꺼질듯 킬듯싯게나즈막한 곳에서 몸을떨고잇는듯하엿다

「움막집이 우섭게보입디까? 돼지우리가튼 그집속에서나마도 살겟다고 발버둥을치며 낫이면 시장에몸켜나와서 자본가니 중산계급이니 소상인이니 거간이니의 발뿌리에 채여가며 허덕이다가 밤이되면 그래도 위안처라고 자긔집을 차저가서 곤한 몸을 쉬면서 켜노흔저 석유등잔불들! 그것이 이 전등불보다 아름답게 보여서야 되겟소? 움막집이 오슬게 보이다가 애처러운 불들이 곱게 보이다가 그러케야되나?그러케 방관하는태도를 가지지말나는대도 그려오?」

준호의말소리는 엄숙하엿다。 복주도 긴장한 얼굴빗츠로고개를숙엿다。 그러나 준호가자기의표정을 봐주지못할것을생각하고 컴컴한 밤빗을복주는 원망하엿다。

큰길좌우편에는 음식점이거이한간도 걸느지안코 먼거리까지 죽-련해잇고 그웅식점마다 기름머리를 치겨빗고분을 하야케 뒤집어쓴 매소부들이 삼사인식 번들그리는인조견 치마들을 질으르끌고실거리에 나와서서 코노래들불으며 몸을 흔들거리면서 그렴듯한 행인들에게 낙시때를걸고잇다。

「이것이 조선에서도 첫재로칠만한 목포공설시장이라우」

하고 준호가 왼편에보이는 큰건물을 가라쳣다。 그마즌편 카페에서는 비속한 레코드의소리가 흘너나오는사이로 여급들의 일부러낫는 우숨소리가 들녀왓다。

「이것이 카페아리랑。」

「아니 목포에도 이런 큰카페가잇서요?」

「홍 목포에 카페가 몃개나되는지 알우? 조선카페가 큰것으로만네개 일본카페는 아마 열개쯤이나될껄」

「아니 술집이 이러케두만흐케만어요? 목포사내들은카페만다니나?」

「그러기에 기가막힌단말이지오。술파게집으로 하는장사가 목포처럼 번창하는곳은 아마 전조선에 업슬껄。자 이러케 술집과카페가 전성하여가는반면에 허러지고문허지는 집이잇다우。나만따려오시오。내 보여주리다」

준호는 한숨섞거 말하면서 이층집의 유리창에서 장고소리와 노래소리가 들녀오는 고급요리점이 줄을지어잇는 길거리를지나 컴컴한 골목으로드러서더니 큼즉한집압헤서 웃둑 발을멈첫다。

「자 이것이 려사깁고 일만혓든 목포청년회관이엿소」

준호의말소리는 감격에찬듯하엿다。

「그러든게 이제는 이모양으로 허러지고 문허저 버린집이 되여잇구려。」

준호는 회중전등을 꺼내여 방안을빗첫다 과연 유리창는 문들까지 다깨여젓고 집웅으로는 하늘의별이 보일만큼 천정이 가라안젓다 사방벽은 다허러저 군대군대 써어전 마루방에 흙무덕이가되여잇고 마른날이것만 천정에서는흙물이 줄줄 나려와 처참한 낙수소리를 내이고잇섯다

「아아 사람의 시체썩은것을 보기보다도 더가슴아픈일이다」

준호는 무거운 말소리로 부르지젓다

「아니 목포에는 청년들은업고 사람도 업나요?청년회관을 이래버려두게요」

복주는 분개한듯이 톡소아말하엿다。

「홍 이집에 출입하든 사람들은 죽기도하엿고 업서지기도 하엿소。남어지사람들은 카페와 술집으로 전낙해다니느라고도라볼여가와힘이업소。목포말이겟소ㅇ(略) 그러기에 복주씨나 나의책임이 더무겁고 중하오。」

준호는 복주의등을 두드리며 힘잇게 말하엿다

對米關係五十年史
多事한施逸公使時代
⑩ 湖岩

日淸戰爭과 『씰』公使

『하ー드』公使時代가 半島政界의 沈滯期이엿슴에 反하야 『하ー드』의 뒤를 니어赴任한 『씰』(J. M. B. Sill) 公使時代는 실로 多事의秋이엿스니

=東= 方局面을 一變케하든 日淸戰爭이 일어나고 또 宮廷慘劇인 乙未政變이 일어나 近世史上 가장波瀾이 重疊하든 轉換期이엿섯다 이 前後의 非常事變에 對하야 泰西各國中 우리와 最初에 通商한友邦으로 特히相助를 約束하게된 合衆國은 어떠한意向을 가젓스며 그의代表者로 京城에 來駐한 『씰』公使는 과연어떤手段을 取하엿든가 勿論公使는 自國政府의 指令을 따라 行動하는것이 元則임으로 『와싱톤』政府의 意向如何가 곳 『씰』公使의 態度를 決定지게 되는 關鍵이지마는

=實= 際에잇서서 반드시 그런것도 아니엿섯다 『와싱톤』政府와 『씰』公使사이에는 一致가 되지못한적이 흔히 잇섯스니 그는 『씰』公使가 『와싱톤』政府의 指令을 無視하거나 혹은 기다리지안코 무슨일을 擅斷하기때문에 그리 되것은 아니며 그러면 『와싱톤』政府가 對韓政策을 달리하기때문에 그리된것이냐 하면 그도아니다 美國의 對韓政策은 언제나 不干涉主義요 嚴正中立主義에 徹底하엿스니 그理由는 아주明白하다 美國側으로보면 極東半島는 實際의利害關係가 여하튼이 아니라 國際의 危險地帶임으로서다 비록 公使一個人으로서는

=朝= 鮮에對하야 深厚한 同情을 가진이도 업는바아니나 『와싱톤』政府의 方針이 이로해서 일쑥 動搖가 생기거나 變更이 잇슨것은 아니엿다 이러見地에서 『씰』公使時代의 韓美關係를 살필때 幾多의 解釋하거 [illegible] 될것이다 어쩌든지 『씰』公使는 歷代駐韓美國公使中에 가장만흔 [illegible]을 試한人物이엿섯나니 이時代에잇서서는 [illegible]의 『포ー크』 [illegible]의 『알렌』을 [illegible] 꼬는 그를 다룸이가 잇슬것이다 지금 『씰』公使의 [illegible]을 그의

=觀= [illegible]인 『벙커』夫人에게듯건대 公使되기前까지는 美國에서 育英事業에 몸을 바쳐든 敎授이며 그의從妹는 美國 『옥포드』女子大學의 總長으로 잇서 크게 令名을 드날렷다 하거니와 『씰』公使가 一八九四年(甲午三月)에 朝鮮에 올때는 近六十된 老紳士이엿스며 그가京城에 赴任하든前後는 東學亂으로해서 國際的低氣壓이 半島를 덥헛섯고 그리하야 畢竟日淸의出兵을 보게된바 淸國의口實은 朝鮮의請求에 依하야 出兵햇노라하며 例의 宗屬問題를 또다시 云爲함에 對하야 日本의主張은 居留民과公使館을

=護= 衛하기爲하야出兵하노라고 하엿다 그런데 이때 『씰』公使는 日本의出兵한理由를 [illegible]한듯하니 一八九四年六月十八日 『그레샴』國務長官에게보낸 편지를보면 잘알수잇다 그 편지에는 『大鳥公使의 말에 依하면 日本의 出兵은 居留民과 公使館을 護衛하기爲함이라 하는바 日本人으로서 朝鮮에잇는者ー 現在京城에 一千人、仁川에 四千人、釜山及 元山에 一萬人이며 日本人으로서 朝鮮事變에 犧牲된者ー 일즉壬午軍變에 四十名以上、甲申政變에 約六十名이 된것을 생각하면 그說이 正當하다』 고 하엿다 (延禧敎授李卯默博士論文 朝鮮과日淸戰爭二七九頁參照) 그러나 이때

=半= 島를 사이에두고 날로危機에 臨하야지는 日淸의國際關係를 알게된 『와싱톤』政府는 在京城『씰』公使에게 電訓하되 『朝鮮과 朝鮮國民의安寧에對한 合衆國의 友誼的關係로보아 平和狀態의 存續을 爲하야 모든可及的努力을 다하라』 라고 하엿다 (李博士論文二八一頁參照) 『씰』公使는 이險惡化하게된 國際的平和를 克服하기爲하야 六月廿五日에 가서는 英露佛等의 代表者와 提携하야 日淸兩國使臣에게 共同涉牒을 보내여

=日= 淸兩方이 同時撤兵할것을 要求하엿다 그런데 이때 『씰』公使는 『와싱톤』政府에 報告하되 『淸國은 共同撤兵에 贊成하나 日本은 듯지아니하니 딴目的이 잇는듯하며 戰爭을要求하는것갓다. 朝鮮의安全이 威脅을 맛는다』 고 하엿다 이것은 日淸戰爭이 爆發되기前에 美國및 『씰』公使가 取한바 態度의 一端이다。

學藝

將來할朝鮮文學은?

世界의文學은 煩惱하고잇다 르네쌍스以後의 文學의發達은 여러가지이즘을 胚胎하엿고지금의世界의 情勢미테서 나아갈길이 阻止되엿는가?하엿슬때文學 그自體로서도文學의大路의 遮斷된危機를뛰여넘지안코는안되게되엿다 民族, 或은傳統主義의文學이냐 世界的인文學이냐 다시말하면 예젓로다시도라가느냐? 새길로나아가느냐가 問題다 더구나歷史가짜르고 그環境이 다른朝鮮의文學은 將次어듸로가야조흘것이냐 沈滯에서끈처버리라는 朝鮮의文學은 이제 새로운出發이잇서야만되겟다 그래서朝鮮의文學의새길을열고자하야諸氏의 高見卓論을傳達하는바이다

文學上 朝鮮主義의諸樣姿 (一)
金起林

끈침업시 움즉이면서 잇는者가 民族의 文學活動에서 文學一般을 抽象하는것은 文藝學의 領分에屬한다。

現實로 生動하고잇는 한民族의 文學의 將來를 豫言하는일 것은 文藝一般을 抽象하는일보다 더욱 어려운일인가한다

그러나 [illegible] 노핫거나나 저거나간에 現實로서 變遷해온 朝鮮文學의 過去와現在의 [illegible] 綜合하야 이切斷된한瞬間의 朝鮮文學의全體姿勢를 가장 길게觀測하며 先進諸國의 文學史的發展에서 演繹하야서 朝鮮文學의未來를 論斷하는것은반도시 不可能한일은아니가한다

○……○

그럼다고해도 그것은 大體로 文學史家의 할일이다. 나는오로 이問題에대하야 뒤여난할일을 豫想하지는안는다 다만 眼前의 일에對한 나의主觀의意想의一端에 暗示를 주엇슴에 不過하다。

그런데 다른데에도 그러치만 朝鮮의 文學에잇서서 그將來를 展望할때는 두개의態度가 잇슬수잇스리라고 생각한다。

첫재, 事態의 發展을 잇는 그대로 客觀的으로 觀察하는態度와

둘재, 願望에 忠實하야 『이러하여야한다』고하는것보다 『이러해야한다』고하는 願望을보이는境遇가 그것이다。

○……○

前者는 어듸까지든지 事實의 客觀性과 實然性에 忠實하는 科學的態度요 後者는 한개의 價値論에서부터 事態의必然性을論하야 當爲로서의規範을보여주는 哲學的인 態度다

大膽로는 이러한性質의問題를 取扱할때에는 論者의속에 이두가지態度가 混在하는 境遇가만혼가한다 이問題에 대하야 學的準備를 充分히 하지못한 나는 나의態度를 지나치지안는 한常識家에 分明히 規定하기에는 너무나 卑怯한것을 告白한다. 다만될수잇는대로 事實에 忠實하기를힘쓰면서 同時에 나의價値論이때때로 加味할수잇는權利를또한保留한다

○……○

이러한準備아래서大膽로問題를

1、文學의質과量

2、文學思潮

3、文學의『장르』(種類)

의세가지方面에잇서서의朝鮮文學의 將來를 論究해보고십다

×

엇더한나라에서도 文學에대한 文學者의 態度는 『내슈날리즘』과 世界主義와의 두가지로 對立한다. 愛蘭에잇서서는 『예ー쓰』一派는 前者에屬하고 『조이쓰』가른사람은 孤立한 世界主義者다.

『나치쓰』의號令아래엣는 獨逸文學은 極端의 『내슈날리즘』이라고 들른다.

그런데朝鮮에잇서의文字上의 『내슈날리즘』은 朝鮮主義의일홈으로불려진다. 이것이朝鮮的特性을 가지고 世界文學에 參與하려는 强烈한意圖를 가젓슬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許容한다. 그것은 究竟에가서 世界主義와 一致하는建設的인 까닭이다。

○……○

한편에는 漠然한 朝鮮情調를基調로한 朝鮮主義가잇스나 우리는그것의可能性을 否定하지안는다.

先代로부터 물려가지고온 우리들의옛노래와 現在의우리들중의 自然發生的인노래들속에 담겨잇는 朝鮮情調는果然朝鮮歷史에 엇더한感情을 結果햇는가? 우리는 朝鮮情調라는것은(略) 情調以上의것이라고생각지안는다 그것은現實로서는 幾多의 『멘탈리즘』의亞流를 맨드러내고잇다

한편에는 이와類似한 또한개의 朝鮮主義가잇스니 그것은 前者보다는 좀더 意志的인것이여서 强烈한 排他的意慾을 보이면서나타난다。

○……○

大膽로 文學上의 排他的 『내슈날리즘』은 그民族이 孤立한 狀態에잇슬때의 感情에 比例하는것갓다。

그것은外方의包圍에對한그自身의反撥力의한개의發現인것갓다 例를들면 獨逸과가티 그民族의運命이 다른民族의脅威아래 노혀저서 항상不安을느낄境遇에 가장明瞭한 色彩를 가지고나타나는가한다. 그것은恒常政治的潔癖과 關聯되고잇다 그럼으로 朝鮮에잇서서의이 種類의排他的朝鮮主義는 그리케消滅하지는못하다. 그러면서도 一部의文學者속에 숨어잇수 업는感情으로서存在하는것은事實이다

新刊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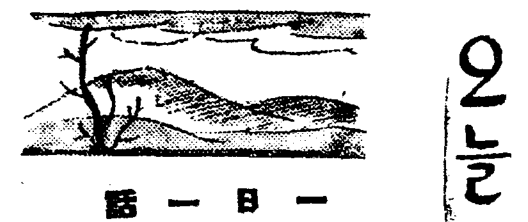
▲朝鮮農會斡旋通報 第二十五號 京城府黃金町二丁目朝鮮農會斡旋部發行 振替京城三○三番 定價六錢

▲宗敎時報 十一月號 京城府鍾路三丁目九一番地 朝鮮耶蘇敎長老會總會宗敎育部 振替京城一七二七八番 定價五錢

감시헐한 라듐代用品發明
◇米國칼리포ー니아大學敎授가

『라듐』이라하면世界에서 가장高價인것이나最近米國 칼리포니아 大學의 레이란지敎授는 極히 적은費用으로 『소듐』을 『라듐』으로 變化식히는方法을 發見한 旨發表하야 센세ー숀을 이르키엿다 同敎授의말을드르면普通의 『소듐』을 『테유ー트』이라고하는電子로爆破한즉 重『소듐』으로 變化식힐수가잇는바 이重소듐은 分解하는데에 잇서서 『라듐』의그것과同樣인데 다가그보담强力인 『간마』線을 放出한다고한다 그뿐아니라 『소듐』을 『라듐』과 꼭가튼性能을가진이重『소듐』을變化식히는데要하는費用은現在의 『라듐』의갑스로 본다면 全혀比較가 안될만큼적다 萬若이發見이 事實이라면 醫學、理學의 硏究에 大革新이라할수잇다

오늘의그사람들
四年間 ③ 그★안해
A生


一日一話

그녀자는 그의남편을 사년동안 안이나 흙으로기다렷다 결혼한지사흘만에 큐힘을간다고떠나간 그사나히를믿고 그리워하고 기다렷섯다 결혼날 그 활작핀 꼿갓튼자긔의얼골이 이제는주인업는 시집사리에 찌드러서 말못되엿다 또는 남편도업는자긔의 얼골을 때만질생각도 아니하엿다

밤낫그리워하고 기다리든남편이 올때에는 왓슬것인데 연구를 터한다고 일년동안 말미를한것이다

◇

그는 울고도십고 햇것지만 시부모에게 보히지안호랴고 다만 이불속에서 흘적이고 하엿다

그는 자유결혼도 아니엿다 그러나 자긔의마음에는 그사나히가 맘에 마젓섯다 말하자면 그사나히가 언제가 자긔를 한번보고서 부모를조라서 결혼한것이따 아모래도 그에게는 그만한 로가 조치안흔것갓햇다 한번보고 호긔심에 그리케 서투른것이 아닌가 하엿다 그것은 사변동안 한번도방학동안에 고향에를 오지안흔것이엿다

◇

완고한 시집에서 남편도업서 드난을사는 자긔의안날신세가 언제나불안하엿다

◇

『왜! 내가 그때 버티여보지못하엿슬가? 나히가 어렷기때문이엿지!』

그는소위 집안의 어른이라는이에게서 낡은반찬으로도는먹든지, 누룽지로만 사려오는 완고한집 가정사리를 배운것이 사실왼통도하엿다 그가간뒤로 일년동안은편지가왓스나 우급삼년동안 부모에게만 보내는편지뿐ー서부모는그저 『그애가잘잇다고편지』나할뿐 이때서야 사람이 살수가잇는가?

◇

하로는 자긔에게도 그기다리든사람에게서 편지가왓다 그것도 시부모의 검열을지나서온것이다

『리혼합시다 부양료를달래면 주리다』

그는 분해서 몸을떨었다 그는 그리고 눈물을짤짤흘린얼골로 시부모를 아페 그편지를보혓다

『흥ーー 나도보앗다 왜! 네가 그애에게 잘못한일이잇섯니? 그애가 어련것을아니할아인데 ー허그참』 할뿐엿을 당으려버리는것이다

◇

그녀자는 몃칠것 가랏다 미치지안흔것은 다행하나 그만 그는 밤거리의천사가 되엿다 그남자가 도라와서 밤거리에서 그를맛날때 그의분바른얼골을 엿부다고 할지도모른다

危險!꼭注意

「頭痛藥 齒痛藥을 求하신분에

頭痛이날時 흐리터분할時 또는 子女들의 齒痛時에 쓰시고게시든 頭痛齒痛藥의 大部分은 胃腸에 가장무서운 害를 끼치는 アスピリン アンチヘブリン 主劑가만코 이것을 連用한즉 胃腸이 慘담혀도 傷하야 색은고기의 속창자갓치되는고로 服用하실때에는 藥店에서 右에 揭載함과 如한 アスピリン과 アンチヘブリン 의안들어잇는 藥을 求하셥서오

頭痛藥이라하야도 內服藥인 以上반다시胃腸을通過하는 것은當然함으로前記鎭痛劑(ピリン劑)의危險한것을말할것업은소。그럼으로이런 見解에서今般創製한 『はれやか』는 獨逸明腦原藥에强度의胃腸藥能을巧妙히保有식힌것으로、連用하야도少毫도無害할뿐外라、먹으면 먹을수록、腦細胞을稗益하야서、『머리를조케』하고、記憶力思考力을쑥쑥增進하야、同時에胃腸도强케되여지오。頭痛眩暈齒痛等을即治할뿐外라、頭腦의治療回復에도、稀有의頭腦藥奏劑로써專門醫家、文壇諸家을 비롯하야 넓이녀둡구롭과가치賞讚이엿어나고엿소。

左와如한症狀에 はれやか를 쓰십시오

一、頭痛偏頭痛으로욱신욱신할時
一、過度의執務勉學으로疲勞頭痛날時
一、宿醉過食、氣分쑤불時
一、記憶力、思考力減退、頭腦朦朧할時
一、不眠과睡眠不足時
一、齒痛으로쑥쑥실時

主効 頭痛、偏頭痛、不眠病、宿醉、頭腦疲勞回復、記憶力減退、頭重、齒痛、關節、루마지스、胃腸카타루、消化不良、過度의執務勉學으로因한一般的腦神經衰弱 [illegible]

藥價 三十錢・五十錢・一圓 二圓・三圓・五圓

胃腸을强하게는 頭痛疲勞回復藥

かやれは

(獨逸原名 ハイテル)

販賣元 東京市銀座一丁目七 日獨醫化學研究所

無代進呈 [illegible] 東京銀座一ノ七 日獨醫化學研究所

義州水鎭面의 女子夜學盛況

【義州】 의주군수진면수구동 배신학교(水鎭面水口洞培新學校)의 최윤옥(崔潤玉)녀선생은 매일교편을 잡고잇는 이마큼여가 ㅅ는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칠일부터 약삼개월간 매일밤두시간식 녀자강습회를 개최하야 문맹타파에 노력한다는데 지금 강습생이 칠십여명에 달하야대 성황으로 교수과목은 한글을 ㅜ로하고 산술 국어 자수등 가정 생활에 필요한것이라고 한다

上需里食刀强盜 意外事件自白

强盜五件、竊盜六件

【平壤】 긔보=지난륙일오후 십시반경 평양부내 상수리(上需里) 정미업 박정삼(朴鼎三)씨집에 침입하여 현금사백십오원을강탈도주하엿든식도강도부내 상수구리(上水口里)박성근(朴成根)(二〇)은 팔일밤 칠시경 부내인흥리(仁興里)유곽에서 대동서형사대에게 체포되여 엄중취조를 밧고잇는중 의외에도그는 부내에잇서서 소화륙년부터 현재까지 강도오건절도 륙건의 여죄를자백 하여취조밧든 경관을 놀내게하엿는데 그는 십칠세때부터 부내에잇서서 강도를 감행하여발각되지안은것을 기화로 이섭세인『오늘에까지 마시년간 흉괴를가지고 로상강도를 하다가 여섯번재인 이번에 필경 체포된것으로이로서 평양대동량서의미궁에 드럿든 강도사건이 대부분청산되리라한다

水原의 보드빌大會 新記錄을突破코閉幕

【水原】 수원운동구락부주최와수원무도관、수원권투구락부 본보수원지국、중앙일보지국공동후원의권투、유도、력기、철봉등의보드빌대회는예정과가티 십일일오후여덜시부터주원극장에서 동구락부 회장 리완선(李完善)씨개회사와 본보수원지국장리석신(李錫新)씨사회로개최되엿는데 이런종류의대회는 수원에잇서서는 처음일이요 더욱이멀니로부터 선만권투구락부、극동무도관、경성청년회권투부원들의특별출전도잇서서미리부터인긔가비등하얏든만큼정각전부터 드리밀니는 관중으로회장은대만원을일우엇다 회가 진행됨을따라 출전되는선수들은 전부가전조선선수권보지자들로최고기록을 가지고잇는 대표선수들인만큼개회벽두부터장쾌한유연이 전개되여 관중들의마음을완전히 사로잡아버렷다 더욱이력기에 잇서서는 극동무도관의 리세영(李世泳)(一九)군이『쩌크』전선기록 이백오십폰드를놀파하기 십폰드! 이백륙십폰드(약의 백아흔네덜근무게)의철봉을머리우로보기조케드러올려장래가더욱한박수갈채도마츰내관중을열광케만드럿ㄴ데이외에도 유도대권투 세게일주철봉등 가지가지 흥미진한 종목이잇서서 만장의관중을 도취시긴후동 십일시경에 대성황리에 폐회하엿다한다

色衣奬勵非難 山에서도

【論山】 충남론산(忠南論山)에서는 지난오일 론산장날부터 계속하야 장꾼이모여드는 긔회를 리용하야군면직원과 경관 외종ㅅ원으로 백의입은 사람이면 남녀노유를 불론하고 강제로물색을 발러주며 상투잇는사람이면 불문곡직하고 작발ㅅ식키는등 그장려방법은 너무나무리란폭하다하야 일반은 비난이자자하다고ㅅ며 장꾼은 중도에서 도다가는사람이 만타고한다

波瀾만흔平安水組 評議員選擧總會 新聞記者出入까지禁止 會場畢竟修羅場化

【順安】 지난십일일 평남평안수리조합에서는 순안읍내 보통학교내에서 제삼회 평의원선거회의를 개최하엿는데 해조합은 오래전부터 소위 토취토사(土取土捨)장과 수로용지 대금등문제로 말성이만허 지주대조합ㅅ간에 오래동ㄴ 항쟁하든 사실은 아직세인의 긔억이새로운이때이므로금번평의원선거는 일반의주목을 총집중하고 잇든바 과연조합당국에서는 개회벽두부터 엄중한경계하에 입장자의자격검사를엄중히하는동시에 신문긔자의방청까지일체금지를 선언하자 장내의공긔는 험악하게되여 평의원석으로부터 평의원선거회의는 당연히 공개할회의임에 불구하고 신문긔자까지 방청을금지함은 무슨다유인가하고 질문이 속출함에도불구하고 의장리교식(李敎植)씨는 이를 일축하고 비밀리에투표를 시작하자 총대안재수(安載遂)씨는 한병익(韓炳益)외삼사인은이와 가튼 암흑선거에는 이자리에서 투표를 할수업다하고 격분하야일시에 퇴장을 하게되여장내는극도로 소란하게되엿는데 일반평의원은물론 지주들은 조합의무리한처치에불평이비등하다고한다

出獄七日만에 又復强竊盜

【江景】 충남공주군의출생으로 주소부정한 신완길(申完吉)은 전과이범자로서 대전감옥에서삼년징역을 맛치고 지난 시월 이십오일 출감하자 론산본정 김봉운(論山本町 金鳳雲)의 집으로 내려와서 지방의형편을 삶히고 지난 삼일오전세시경 군청원장촌모(郡廳員莊村某)의집에잠입하야금측회중시게를 절취하여 가지고주인김봉운에게사정을말하야금시게의팔곳을 지시하여 달라하엿든바김씨는 이즉진히 알고잇든 재산가 론산군구자곡면 야촌리 염ㅅ진(論山郡九子谷面野村里 廉鎭珍)(三六)의 차처가서금시계를흥정하다가 가격의 차이가잇서서팔지아니하고 돌아오는 발길을다시 도리켜 염씨의침식칼(食刀)을훔처들고 김봉운은 파수를보게하고 신완길은 주인의 바울열고 들어가서 시계사려든돈이 네게잇스니 내여노라고 협박하야 현금십일원 삼십전을 강탈하여가지고 도망함으로 가야곡주재소(可也谷駐在所)에고발하야 강경서사법주임 한경부가형사를 대동하고 급히출장하야 오전륙시경 론산김봉운의집에서모다 체포하야 엄중취조하는중이라한다

銀尺野覆沙 損害救濟陳情

關係數百作人連書로

【金泉】 경북김천군감천면(甘川面)에잇는은척들(銀尺野)은 김천에잇서서 우수한 들중의하나인바 작년의대홍수로 말미암아 여재해의결과퇴여 일백삼십여정보가매몰되엿든것을금춘이래경북도에서보조를어더복구공사를하게되여가을에일으럽공사도거의끗이낫스며전답도개간하야 근년에보지못한대풍작을보게되여작인들은제각금깁버함을마지아튼바에방업시세방울끈코수문공사를하다가 때안인 호우、끈ㅅ곳으로 김천강(甘川江)범람하여 일주일내외에 추수할성숙된곡식과함께 전긔 일백삼십여정보에다시사가씨이엿다함은 당시보도에 보한바어니와 이에대하야 경북도김천군등 각관계당국에서 실지를 답사하야피해정도를조사하얏스나이로인하야긔아선상에 직면하야 잇는 수백명 소작인에대한 구제방침결정되지못하엿스며지주측에서도 칙의업자의 일시부주의로인하야당한 피해를 그대로묵ㅅ할수업다 하야 지주소작인등 피해자 수백명의련서로지난구일김천군에 진정서를제출하엿다 하며 압흐로상도진정위원을 선정하야 상도진정하리라한다

돈차저가시오

【水原】 본보수원지국배달최순업(崔順業)(一五)은십일일새벽다섯시반경에 신문을 배달하다가한성은행 지점압페서 현금륙원이드러잇는 돈가방을 주서ㅅ시소는 수원경찰서에 계출하얏다는데 전긔가방속에는가장(
校)모라는명함한장외에여러가지령수증등어들이잇섯다고한다

바다간新郞이여 오늘을모름니까

婚日에눈물이웬일

【新昌】 함남신창에서어선일백사오척과선원천여명이바다나간채 소식이단절되엿다고 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번 불의의 조란으로인하야 뒤따라 이러나는히비극이 한두건이안인데 그중에서도 지난십일이 길일이라고하야 혼례일로정하고 만반준비를갓추웟다가 우슴으로 마지할 그날을눈물로마지한 혼가들이상당히만어어룬이아니면볼수업는비참한정경 이두고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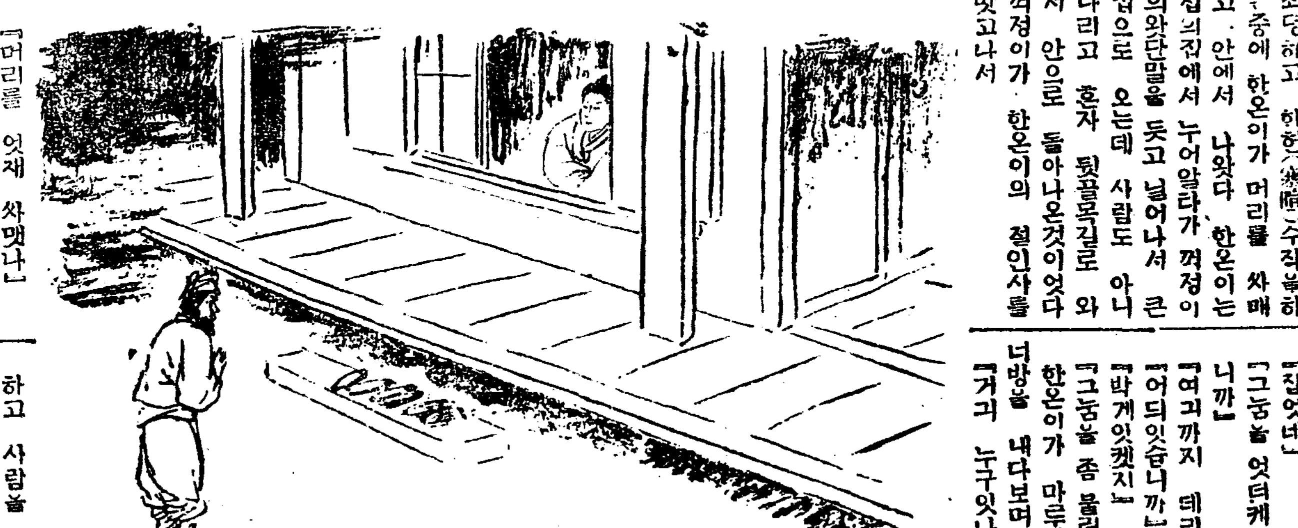
江景邑에서는 女子속에먹칠

【江景】 지난십일일은 강경장날로새벽부터 장에 오는남녀로이날새벽의장려 하는챗날 이므로유는 흰옷입고 물색의물총을맛게되엿는데 그중에는 자동차속에잇는손님까지『수룹』을식혀노코물색을 뿌리며 녀ㅅ의속옷까지잉크를 뿌리고 심지어상제의 힌옷에까지 잉크를뿌리는등 실로 장관은일대 소동을이루엇다하여 이소문을듯는 사람들은 도중에서 다시도라간 사람도만타는데 일반은 그장려방법이너무나폭행적임에 비난이놉다한다

火賊林巨正 (36)

洪碧初作 安碩柱畵

청석골 三의二



하첨지가 사랑중문에 들어올때 좌우부액한사람이 쉬쏘리를 질러서 바과 마루에잇든사람들이 모다 돌아레로뒤어나려갓다 꺽정이도 마루끄테 나섯는데 한첨지가 치어다보고

『오늘아침에 까치가 유난히짓드니 귀한손님이 오섯소구려』

하고 너스레조케 우스면서마루우로 올라왓다 꺽정이가한첨지와가티 방에 들어와서좌정하고 한헌(寒暄)수작을하는중에 한온이가 머리를 싸매고 안에서 나왓다 한온이는첩의집에서 누어알타가 꺽정이의와단말을 듯고 넘어나서 큰집으로 오는데 사람도 아니다리고 혼자 뒷골목길로 와서 안으로 돌아나온것이엇다 꺽정이가 한온이의 절인사를 밧고나서

『머리를 엇재 싸맷나』

하고 물으니 한온이는 상글상글 우스면서

『기생방에서 드잽이 노라가 압이마를 좀다첫습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한첨지가 눈쌀을 찌프리고

『이자식아 남에게 어터마진게 자랑이냐』

하고 나물하얏다

『누가 자랑햇습니까』

『자랑아니면 낫바닥이 뻔뻔하게 기생방 치다가 어터마젓다구 말슴한단말이냐』

『기생방 치다가 어터마진걸 긔일건 무엇잇습니까』

『기생방출입한걸 아비나 손님아페서 들어내노쿠 말하는게 무엄한일인줄 몰으느냐』

『기생방에 가는게 무엄하면 몰을까 기생방에 간걸 갓다구 바루 말슴하는거야 무엄하다구할것이 업지안습니까』

『너는 하우불이의 자식이야 데리구 말할수가 업다』

한첨지 부자간에 오고가는 말을 꺽정이는 빙그레 우스면서 듯다가 한첨지를 돌아보고

『말이즉 자제말이 올쏘』

하고 껄껄 우섯다

『올킨 무에 올단말슴이요 설혹이 올타구치드레두 자식으루 아비말대답하는법이어 되잇소 자식은 아예 용서으루 길들케아닙디다』

한온이가 아비의 잔소리를 가루막으라고 얼른 꺽정이를 보고

『이천서 어제 떠나섯습니까』

하고 말을 물엇다

『그끄적게 떠낫네』

『그끄적게 떠나셧스면 어듸 들러오십니까』

『영평 도듸여울을 들녀왓네』

『도듸여울을 들려오셧서요 올지 가짜눔을 잡으러갓섯슴니다그려 그래 그눔을 잡으셧슴니까』

『잡엇네』

『그눔을 엇더케 처치하섯습니까』

『여긔까지 데리구와ㅅ네』

『어듸잇슴니까』

『박게잇켓지』

『그눔을 좀 불러보겟습니다』

한온이가 마루문을 열고 건너방을 내다보며

『거긔 누구잇나』

하고 사람을 불러서

『청석골 대장께서 데리구 오신사람을 좀 들어오라구하게』

하고 말을 널렷다 마당에 신발쏘리가 나는것을 듯고 한온이가 웃샵 영창을 열고서 내다보더니 곳 몸을 돌처서 아렛간에안진 꺽정이를 바라보며

『그눔이 액구눈이라는데 잘못잡으시지 안으셧습니까』

하고 말하얏다 꺽정이가 박글 향하고

『게 들어온것이누구냐』

하고 소리처 물으니

『소인이옵시다』

하고 대답하는것이 졸개의 목소리이엇다

『로밤이는 어듸갓느냐』

『박게잇습니다』

『들어오라구 불러라』

졸개가 다시 나가서 로밤이와 가치들어온뒤에 꺽정이가 분부하야 하첨지 부자에게 각각 문안들을 드리엇다 한온이가 로밤이를 내다보며

『저꼴악시니를 가지구 임아무라구 행세햇단말인가』

하고 웃는데

『봐하니 남의꼴악서니를 나물하실겨황두 업스실것 갓습니다』

하고 로밤이가 말대답하야 한온이는 영창문을 딱 다치고 돌아섯다

十一月은 겨울의前奏曲 メンソレータム를 愛用할가을입니다

メンソレータム
멘소레담

世界의家庭藥

特効 살거츤데 어러터진데 外傷 火傷 鼻感氣 頭痛 齒痛 神經痛 痔疾 化粧下 面刀後

價 二十五錢 四十五錢 九十錢 一圓八十錢

11—2—B

ヘチマコロン
헤찌마코론

003719

어엽부게 되고십다!

近代麗人의努力에美容法도괴進步되얏다 그러나

어엽부게 하여드리고십다!

ヘチマコロン의至情과効果에는微塵의變化도업습니다

コロン으로영원한幸福된生活!

ヘチマ의물로 發明된化粧水

109

80 Sen • 50 Sen • 30 Sen • 45 Sen

本舖 東京 天野源七商店

經濟解說 增稅斷行決定 今後景氣動向? ⑦

申泰翊

特別利得稅의內容을보면그 稅率은 比例稅로 法人 또는 個人의 所得金額에 對하야 百分之十으로하엿스며 또 人에게는 營業所得額이 一年間六千圓以內의 境遇에限하야 免稅를許하기로 되엿다 그러고 利得金額計算方法은 昭和九年度 即非常時事業年度의 所得이 昭和六年末의金輸出再禁止以前의昭和五六年即平常時事業年度의 利得額보다 超過한境遇에는 그超過額의全體에對하야 課稅하기로된것이다

×

以上은 平常時事業年度의利得額이 非常時事業年度의利得額보다 적게될境遇이다 그러나만약 그럿치안흔 여러가지의境遇에 對하야는 다음과가튼規定이 잇나니 ▲첫재로 平常時事業年度에잇서所得이 全然업고 또는 缺損의境遇 ▲둘재로는 平常時事業年度以後에 新設된境遇 이외가티 平常時事業年度와 非常時事業年度에잇서 經濟上 變化가생겻스면 이에對한平常時事業年度의 平均所得金額을 算出할方法으로는 그當時 社會的으로 平均收益率을 算出하여가지고 이것으로써 右兩境遇의 所得額으로 看做키로되엿다 ▲또資本金에 變化가생긴境遇 增資或은 拂込徵收로써 合法的脫稅를 하엿슬境遇에는 이에對하야 嚴重한防止規定이 잇슬모양이다 그리고 所得稅法에 依하야 重要物產의 輸出奬勵을 免稅키로 된規定, 製鐵事業奬勵法의 三個年 免稅規定을 이번의 特別利得稅에 依하야 適用치 안키로 되엿다 이 特別利得稅의 實施期間은 非常時局이 繼續되는때까지로 될모양인데 目下傳하는 消息에 依하면 昭和十年度로부터 四五個年間의 施行을 意味하는 短期間暫定的稅法이라고한다。

×

그런데 以上의特別利得稅內容에對하야 日本內地의經濟界에서는 어떠케보는가 다시말하면 明年度로부터 斷行하라는增稅內容에 對하야 非難의소리가 잇느냐 업느냐하는말이다 그러나 오늘에잇서 增稅內容에對한非難이 相當한바 그要點을들면 압에와갓다 ▲課稅利得을 算出함에잇서 昭和五六年即 最近經濟界不況이 가장深刻하엿든當時의不均所得을 取한것과그것을 七分程度로推定되엇다고함에對하야 反對를聲明한나 그러고 이利得稅實施에增收를 하여가지고 課稅의負擔을 避하라는것과그대로負擔되는것의均衡을 무엇으로써 保持케되는지 疑問의點이 만타고한다 또經濟界의非常利得은法人利得稅及營業收益稅에 依하야 課稅함으로써 個人의免稅點을 더노피고 法人에게는免稅點을 맨들것이라고한다 ᄏ그럿치안흐면中小營業者의負擔을 重케할念慮가 잇다는것이다

×

그럼으로 오늘에잇서 增稅를反對한다는것보다도 그增稅內容에對한 非難攻擊이相當히만흔터이다 일아서結局藏相의 財政家的政治家的識見이 不足하다고藏相의攻擊이 바야흐로 旺盛하여가는것이事實이다 (此項은終了)

朝鮮內米消費量 今年八百八十萬石

前年보다廿八萬餘石增加 一人當四斗二升餘

昨年十一月一日부터 開始된 前米穀年度에잇서 朝鮮內의 米消費數量에 對한大體의 推定은八百七十九萬六千石으로이것을 前年消費量에比較하면二十八萬餘石의 增加가 되며또 一人當消費는 四斗二升二合으로 이것도前年에比하면 一升三合增이된다 다시米穀實需를 計算하면 結果는다음과가티 十一月一日로부터開始된 新米穀年度로 持越되얏이 五十一萬四千石에 達하는데 이것을前年度四十九萬四千石에 比하면 一萬九千餘石增加의數字가되다

一、朝鮮內總消費推定 八、七九六、一四八

(一人當消費) (四斗二升)

合計 一八、二九五、五四四

差引翌年度로繰越高 五一四、000

供給

一、前年으로부터의持越高 四九四、五六六

一、生產高 一八、一九三、七二〇

一、輸入 三六八

一、移入 三三、四七七

合計 一八、八二一、二二一

▲消費

一、移出 九、四三五、九七〇

一、輸出 五六三、三九八

新米穀年度 米移出增加 粟輸入量도激增

【總督府發表】米穀年의 처음인 十一月上旬의米移出은 二十四萬四千二百五十七石으로 前年同期의十九萬八千六百二石에 比하면四萬五千六百五十五石의增加를나타내다 그러고 粟輸入도二萬七千一百三十一石으로前年同期의 一萬五百六十三石에比하면 一萬六千五百餘石의激增이다

▲米輸移出高 (玄米로換算單位石)

	輸出	移出	合計
今年	四、五五〇	二四四、二五七	二四八、七一三
前年	二、三二三	一九八、六〇二	二〇〇、九二五

▲米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移入	合計
今年	—	二、八二〇	二、八二〇
前年	—	七七一	七七一

▲粟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移入	合計
今年	二七、一三一	—	二七、一三一
前年	一〇、五六三	—	一〇、五六三

荷主를中心한 運送會社不成績

精神은조흐나疑惑이만타

朝鮮內運送業界는 鐵道指定運送人인 朝鮮運送株式會社에게 特權을주어 非合同運送業者(朝鮮人이絕對多數)의立場이 大端困難하야 그營業狀態가維持할이困難한것이 事實인데 朝鮮에잇서 戶島氏를中心으로한 荷主側 支援下에생긴『鮮滿運輸』는 어찌될가가 十三日아츰 田野通運社長談에依하면 荷主를中心으로한 運送會社가精神에잇서조흐나 實際業績을빗최서보면 그自體가營業上 반다시可한것이아니라 여러가지疑惑이잇서 對外關係上 그것마가 고그荷主自體에잇서 지고單獨한會社를 齊利할수업는것이事實이다。그理由는 丸計가어듸까지 計算機關으로서 잇스라고하는것이며 丸交는 戶島와가튼荷主를 迎合한關係上 營業이 目的에잇다 다시말하면 이團體中 一은計算機關 또 一은 營業機關임으로 어떠한

丸計의根本精神 計算機關으로서始終

丸計 에서는 根本精神이 計算機關에 目的이잇는것이며 營業이 目的이아니다。그러대丸計會社創立後라도 一部에서는 地位關係를中心으로 하여가지고 本意이업는策動을 하고丸交의 新會社에對하야 秋波를 보내는것도 事實이나 그것은 朝鮮의 非合同運送業者全體에 對한 精神과 利害關係를沒却한私心에서 나온行動으로도 丸計의根本精神이아니다

中野通運社長談

朝鮮에서 最近一部荷主와業者가提携하야 合同會社를組織한모양이나荷主가關係한 合同方式을 實現케하드래도 그것은 多數한 朝鮮人運送業者를 失職케 하는外에 다른道理가 가업는것이며 그合同한團體는 結局 第二朝運을 맨들것이다 이러케되면 僅少한 資本으로 그날그날生活을 하여가는 多數한 朝鮮人非合同運送業者를 塗炭에 들게하는結果가 되게 이다 會社가잘될니업다 非合同은 法律的으로 新店을 防止치안는限 今後도 늘것일뿐이라고한다

朝鮮人業者를『塗炭』에너흘뿐

合同工作은罪惡?

丸計株主로서 西朝鮮一派中一部株主는 地位關係에잇서 京城業者中 某氏를 압장세우고 策動하는것이 事實이다 그策動은 丸交의新會社를 合同케하라는것이 表面의 理由인데 根本精神에잇서 丸交와丸計는 決코 合同이될수업는것이 事實이다

『鮮滿運輸』의內幕

戶島氏中心의策動

丸交側으로말하면 戶島氏를中心으로한 一部荷主를背景으로 하여가지고 新會社를創立한것이 事實이다그러다이會社代表者라고볼수잇는 戶島氏의本意를살피면 自己個人의營業을鐵道局에對한關係上 有利히展開시키려는一種의策動에지 지나지못하고 이다。表面에잇서여러團體의聯合이지만 實際에잇서는 戶島中心勢力人의追隨에不過하다丸交會社는 拂込金에잇서도世上에서 여러가지의問題가잇는것이事實이다 그會社는 ... 會社로서아즉營業을目

對外爲替市況

(十一月十三日)

【東京電話聯合】

▲東京爲替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一 買 二十九弗四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丁度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大阪爲替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一 買 二十九弗四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丁度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十一月二日의米日爲替은休日記念으로休市)

今月初現在 在米調查

比前年八割增

【電通東京電話】十一月現在米穀現在高調查(第三次最終發表)는如左 昭和九年十一月一日 現在日本內地의 米穀現在高는總數量一千六百三十八萬九千三百五石으로 이를前年同期의九百萬七千五百九十八石에 比하면 七百三十八萬一千七百七石即約八割一分餘의 增加를示하얏다 그리고十二日發表의分은如左하다

一、北海道外二十五地方及國有鐵道貨車內에잇는것 (單位石)

日本內地米 九、五五五、二八〇

朝鮮米 四四四、七〇〇

臺灣米 三〇〇、九七六

外米 一、六四四

計 一〇、三〇八、六四〇

前年同期 五百七十四萬四千五百二十九石에比하면四百六十三萬六千十八石의增

第一、二次發表의分과合計

日本內地米 一五、五二二、三六八

朝鮮米 六五九、五七〇

臺灣米 二〇八、一七五

外米 四、一五五

計 一六、三八九、三〇五

前年同期九百萬七千五百九十八石에比하야 七百三十八萬一千七百七石의增

中小商工業 利子再補償

大藏省에서承認

【東京電話聯合】商工省에서는中小商工金融對策에對하야벌서부터 大藏省과協議中이든바 今回各地의 中小商工業災害對策으로써中小商工金融에 對하야 行하는各府縣의利子補償에 再補償을하는中小商工金融利子補償案을 大藏省에提出하얏슴으로 大藏省에서는十二日의省議에서 이를審議하얏다 그結果 大體에잇서商工省의主張을認하기로決定하얏다따라 大藏省預金部는即時商工省과協議를進行하야具體案을作成하기로되엇는데大藏省은右에要하는國費는豫算外契約에依하야行하다

各港在米量

六十三萬八千餘石 ◇……新米出廻增加

朝鮮各移出港의 十日現在在米高는 民間持十八萬七千四十二石 政府持四十五萬一千三百二石 合計六十三萬八千三百四十四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四十六萬六千七百五石 前月보다十一萬二千七百三十六石의各增加이엇는데 그內容은 알에와갓다 (單位石)

	民間持	政府持
正租	一〇〇、〇〇四	七、四四〇
玄米	三〇、三二三	三九五、八五五
白米	三、三一二	
灣米	一二一	

그리고 各港別을 알에와갓다

▲釜山			
正租	一八、六五一	一八、六五二	三九、五六〇
▲木浦			
白米	九〇〇		
正租	一四、六九一	三九、六六九	
玄米	六、五三〇		
白米	六九六		
▲群山			
正租	三〇、〇〇〇	一〇三、〇六	
玄米	六、五八六		
白米	二、三〇〇		
▲仁川			
正租	三一、一六二	一六、二五〇	
玄米	六、四〇五	九八、〇〇四	
白米	三六		
灣米	一二一		
▲鎭南浦			
正租	一四、三九九	一二一、二五〇	
玄米	三二、一五四	四〇、八〇二	
白米	九〇八		

日蘭會商은 內年解決困難

民間代表는歸還

【바타비야十二日發聯合特派員】日蘭會商은 去八日長岡代表의 會見으로 네프드兩首席代表의 會見으로써 續行하기로決定하얏다 今後蘭印政廳은 純然한 通商外交로서 政治化하면 會談은益益遷延될念慮가잇서 年內解決은 希望이적다고 觀測되게되엿슴으로 이미新綿糸布業會議에 同業代表는 數日中에 撤去하기로決定하얏다 그리고 代表도거이 熱意가 업서 次回委員會에서는 日蘭兩代表와도 各問題에對하야 最後의 態度를決定하야 妥協案을提携하고臨치안으면안될것임으로 讓步의最大限度에 對하야 雙方本國政府에 請訓하고잇슴으로 正式會商은 今週內에는 開會치못하리라고보인다

蘭印側의 入輸稅引下 結局要求?

【바타비야十二日發聯合】十二日의 越田、베루데렌會談에서 蘭印은 日本側의 蘭印物產輸入稅의 引下를要求하얏나越田總領事는右는不當한 高率이아니라는旨를 答하고日本關稅의 稅則制度의 說明을하얏는데蘭印側이今後이問題를 다시끄집어내리라고보인다

蘇聯未晒綿布 蘭印輸入計畫

【바타비야十二日發聯合】一時問題되엇든 未晒綿布問題에 對하야 十二日蘭字新聞은政府側으로부터 나왓다고생각되는 바 如左한情報를揭하얏다 未晒綿布는土人의 必需品임으로 只今直時輸入制限하기는 不可能하다 現在未晒綿布輸入은全然日本으로부터인데 最近蘇聯邦이蘭印物產을多量으로買付하고잇슴으로 政府는그代償으로 蘇聯邦으로부터低廉한未晒綿布의輸入을하려고 計畫中이다

今日財界 (十三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㊀三等米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韓白米新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斤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一匁 [illegible] 銀 [illegible]

株 (單位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古河帳	[illegible]	[illegible]

期待할것업다

底價鍛鍊休養

採算株物色買

◇財界의實態에 何等의動搖가업고이를레의 基調도또한 變化가업스리만치 恐怖的狼狽의人氣가 安定되는同時에俄然急反撥하얏는데 아직 目前에反動高를남기고잇슴을볼수잇다 ◇그러나 그만치瓦落을演出한다음임으로 벌서 大底入이라고보는外엔는데 恐怖人氣는鎮撫되엇슴뿐으로 이를 全然解消하는 新好材料가出現한것이아니으로 反戾은依然再留乃至保險에 팔리리라보일것이바야 採算株의優良한것을選擇하야

株式 雙方警戒 保合

商況 (十三日)

前場保合 戰意업는市勢는株合鍛鍊일뿐이엇스니 即東新은 百二十六圓丁에五十錢低 大新은八十五圓丁에不變, 日產은百五圓三十錢에十錢高, 朝新二十九圓二十錢에十錢低, 료各大引되고 日魯六十四圓五十錢 安取七圓丁이섯엇다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後場强調 後場은 東新百二十六圓十錢에 八十錢高, 大新八十五圓丁에同價, 安取七圓五十錢에各寄付後 强調趨移이다

東株資金融通 正式으로確定

【東京電話商通】東京株取引所는 當中限受株資金은 最高五千萬圓을 限度로 實際必要額만을 興銀으로부터 貸出을受하고 同行에預金하야 이預金을擔保로서 取引員에當中受株資金을 融通키로 決定하고 十三日正式으로 確定하얏다

積極買氣不起

財界는目前的으로 큰異變이 업슬것이事實이요 株式時價도 말하드래도 前週의慘落으로一轉底入되엇다는 觀測이업지안흔터이나 市勢自體에잇서는恐怖가大하엿든만콤 買方으로서는 ... 비덧고有力한大財는株를살망이안나는것이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五百十枚

▲日本鑛業 [illegible] ▲日本鑛業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同新 [illegible] ▲大同電力 [illegible] ▲東京電力 [illegible] ▲日本 [illegible]

◇所謂休養期의底價鍛鍊時代의物色買場이라고豫定하고適處하에外에 他途가업나 ... 바랄수도업고 今回의大底價를 望할수도업거니와 ... 大勢는 돌아가진것 ...

市場六感

株 昨年봄에는 東新을二百二十九圓까지 사보앗는데 그것은 滿洲를 집어먹엇스니가 인푸레」다고 떠드러서 五百圓도사다고氣派이壯觀이엇스나 今日에는 好材料마보면 退散키에奔走한買方이라 얼마나 치켜올릴지가 자못疑問 ▲積極的好材料의 出現이업는限 市勢는 보잘것업는것이 事實 ▲目前的으로는市勢의意味가

米 ▲五千七十四萬餘石의第二回豫想은 樂觀이라할수잇스나 三十年來의初有凶作이란 極度의悲觀의騰落으로써 一巡하엿더할수잇고 압호로 注目材料는政府米의 買替와 公定價格의 決定▲그리고 農家의 態度如何도 注目치안흘수업는걸▲百萬石을 拂下할내에幾分軟弱을 免치못할것이오 百萬石 買上을 實施할내에는 昂騰을 告하게될것이다▲此等의强弱材는相殺하기로하고 農家의 實情은確實한强材▲그리고 明年度需給狀態는政府의大量拂下가잇기外에는 不足을告하게될모양▲非常時期에 處在한政府로서 食糧問題를如何히處決하게될지가장注目處 ▲不無하야押目買를思케함이엇지안치만▲積極的으로買進할時期에는到來치안흠에야奈何?

期米 買氣再萠 昂進

前場反撥 昨後場阪地二十九圓八十一錢止와共히二十七圓三十五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二十九圓九十四錢인十三丁高를擲하고二十七圓五十錢인十五丁高로場을始한後 阪地稍漸高調로結局三十圓○八錢에 止場함을伴하야 六十錢까지跳返하엿다가六十錢으로小弛止場하엿다

後場伸惱 後場은 二十七圓七十錢에 十丁高로始場後 三節六十五錢에 引緩하고 別欄가티止場하다

米豫想發表로 買氣俄然旺盛

日本內地米作第二回豫想은五千七十四萬六千百四十石으로 第一回豫想五千七百三萬餘石에比하면 六百二十九萬石의 減少를示하고此豫想이 發表되기前 四千八百萬石說보다는 二百七十餘萬石의 增加를示함에至하엿다 要하면 阪地三十圓六十錢臺의高價와 當地二十八圓○五錢의高價는旣히 四千八九百萬石의減收를 織込한市場임으로 今回五千七十萬石의 發表는찰아리弱材로될수잇스나그러나 大體三十年來의大凶作인만큼依然買氣潛在하야 今朝의反撥를示

堂島前場反騰

【大阪電話】減收數字發表로 來客側總買이오 再次騰勢에移하얏다▲賣方中東側,(馬越,岫場,處分)東京正米側, 西側, 岫場, 場違側, 岡米側▲買方神戶側, 東京別派 一方二十萬石의 持米를有하越側은 旗色이 鮮明하게 賣하얏고 西山도二回數字發表에依하야 硬材一巡을보아 賣進하얏나

朝取期米取組高

▲當限(賣) [illegible]

▲中限(賣) [illegible]

▲先限(賣)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商通】株式의軟調와金利의軟調로買人氣로되어 內債五分乃至六分은 十錢高, 拂償償還保合이오 米貨는保合低落豫想으로 六分半一圓八十錢高로强張이엇나

甲五分利 不申

一回四分利 九八、七五

二回四分利 不申

佛貨四分利 一八四、五五

▲土佐세멘트新 [illegible] ▲帝國火藥 [illegible] ▲秋田木材 [illegible] ▲三菱重工業 [illegible] ▲新興人絹 [illegible] ▲三菱商事新 [illegible] ▲富士木材 [illegible] ▲大分세멘트 [illegible] ▲北海炭礦 [illegible]

明年度需給觀

拂下與否가問題

새나라로서의 一大注目을끌든 日本內地米의 第二回豫想은 五千七十四萬餘石으로 發表되엿다 此를基準으로하고 明年度需給關係를 推算하면 十一月一日現在米가 一千六百三十八萬九千石 入豫想高一千三百萬石을 加算하야 合計八千十三萬五千石이 되는바 此에서一個年消費豫想高七千七百萬石과 輸移出豫想四十三萬石 合計七千七百四十三萬石을 明年度 端境期의 差減持越高가 八百七十萬五千石이될으로그다지 悲觀하기까지에至하지안는다 그러나 非常時期에處在한 日本政府로서 所有米의大量拂下를 할지가問題인으로米價의 前途는出盛期의 一落이잇슬지는 몰으나大體는昂騰一途바게 업슬엇갓다

그러나新米의出盛期에直面되어수日인까닭 반드시實米의壓迫이업스리라고斷言할수업음으로 買方으로도 買入的行動을取하지못할것이다 그러한關係로보든지 又는米十四日부터 百萬石拂下에對한申請을 接受하야서 十六日에決定發表하게되는 關係로 人氣는材料도업지안흠으로當分頭市形勢로時日을 費하지안을가한다

各地正米

京城硬化 定期反撥으로實需側의買氣를刺戟하야 漸高이오 產地强調와共히 唱價는二十錢硬化인 ㊀三等二七、七〇 四等二七、四〇 一等白米一八、〇

仁川强硬 當地는州高關係도잇서日本內地는大槪不引合하고 當用取引에始終하고잇는데 定期高와 實人高張으로一、二十錢가량 引締하야㊀三等二七、七〇 四等二七、四〇 一等白米一一、四〇

南浦頭重 定期는高하나滯貨米潤澤으로 買氣가阻害되야 實行이납브고 氣配도頭重하야 保合乃至十錢低인㊀三等二七、六〇 四等二七、四〇 一等白米一一、二五

釜山反撥 州廻五千五百叺 日本內地側을비롯하야 定期反撥이오 買氣가旺盛하고 好取引으로 市勢도 一、二十錢反撥인㊀三等二七、九五 四等二七、七五 一等白米一一、六六

大邱上向 日本內地期正米高移로好轉하얏슴으로 氣配도一、二十錢上向인 ㊀三等二七、一〇 四等二七、〇一 一等白米一一、二〇

群山强含 州廻十二輛、定期反騰으로 持米側도買氣를强하야 高價警戒를意外로買添치

木浦不變 州廻六輛 市勢는前日과不變이오 日本側도稍光的으로低價를狙하야 一般으로取引이적엇다 ㊀三等二七、九〇 四等二八、八〇 一等白米一一、四〇

... 商談이적고市勢는保合模樣다 ㊀三等二七、八〇 四等二七、六五 一等白米一二、一

株と米 期米 株式 仁川本町三 小林 ... 京城明治町 福

金融 (十三日)

港外經濟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實入價 [illegible]

米穀 (十三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十三日)

京城綿系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鰯搾粕冲價 [illegible]

鰯油冲價 [illegible]

株式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京取短期 [illegible]

期米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入組高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